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피가 썩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

예배를 보고 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오염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세상으로 나가면 오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 여러분의 얼굴이 까맣게 되는 고로 예배 보러 오면 얼굴이 까맣다가 지금은 잿빛으로 변하게 되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 가서는 얼굴이 하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와서 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말기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 간다고 이 사람이 말했는데, 하나님 되는 방법은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하고,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희생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인내력이 강해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게 내 생명과 마음과 몸과 모든 전체를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 마음이고, 영생의 확신은 인내력이 강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뎌야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지, 참지 못하고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피가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야 살 수 있어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마귀의 마음인 지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화무쌍한 마음상태가 되므로 결국 피가 썩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썩으면 사람이 늙고,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상태가 시종일관 변치 않아야 하나님의 마음이지 변하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고 고로 마귀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사총론에 쓰여 있기를 3년 동안 흉년 들고 2년 동안 과질이 도는데 피가 시커멓게 되면서 응고가 되어 피가 흐르지 못하는 고로 심장마비가 와서 아침에 그 병에 걸리면 저녁에 시체가 되어서 나가는데, 그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하였고, 열 개 구 중에 아홉 개는 죽고 한 개 구만 산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인류가 60억에 달하는데 그 60억 중에서 90%가 죽는다는 것인 고로 54억은 죽고 6억만 산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제약을 격암유록에서는 천질(天疾)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늘의 질병이라는 뜻으로 세상 의사들은 못 고치고 오직 정도령만이 그 병을 고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정도령이 있는 곳으로 몰려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정도령을 만날 수가 없는 고로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한테 정도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졸라대고,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에 우리 승리제단 식구가 그 사람을 살려줄 맘이 있어서 데리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도령이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 이 사람은 승리제단 식구를 내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 고로 내 식



구세주 조희성님

구가 데리고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안 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승리제단 식구들한테 금덩어리도 갖다주고 다이아몬드도 갖다 주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고로 그동안 승리제단 나간다고 조롱받고 핍박받던 여러분들이 그때가 되면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이니까 그렇지 그런 현상이 진짜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격암유록에 “정도령이 조선 땅에 있고 세계 만민이 다 몰려오는데 조선인이 왜 못 가노.”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은 “한국 땅에 정도령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왜 못 가느냐. 어서 가자!” 하면서 아들, 딸, 사위 할 것 없이 손에 손을 잡고 몰려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제단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며칠 있다가 오라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몰려드는 고로 우리들이 앉아서 예배 볼 장소도 없어지고 정도령 만나보기도 힘

들어지겠소? 말도 안 통하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손을 흔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썩은 사람들은 은금보화를 큰 배에다 바리바리 싣고 와서는 구세주, 정도령님한테 갖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배를 바다에 정착시켜 놓고 조그만 배로 육지까지 실어 나르면 트럭이 와서 그 은금보화를 싣고 여기까지 와서 풀어놓는 통역을 시켜서 제발 구세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만났다 하면 다 죽어가는 환자들도 그냥 걸어서 나가게 되는 고로 여러 방송국에서 “죽을병을 역곡에 있는 구세주 가 다 고쳐준다, 이렇게 죽을병에 걸린 환자가 나아가고 걸어가는 것을 바라.”라고 말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여주겠소? 그걸 보면 세계 만민들이 금덩어리고 다이아몬드고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배에다 싣고 와서 이 사람에게 갖다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벌게 되어 있는 것입니

다.

눈물 나는 구세주의 사정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승리제단에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고로 이 제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창기에 율법을 정하기를 매일 나와야 되는데 만부득이해서 못 나올 사정이 생기면 그럴 때는 허락을 받으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아니라도 제단의 간부나 구역장, 지역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한한테 허락받은 거와 똑같은 고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나왔다가 되어야지 도장 안 찍힌 데가 드문드문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단이 지금은 이렇게 빈자리도 있고 하니가 웬만하면 들어오라고 해서 예배 보게 하지만 그때가 되면 사람이 미어터지는 고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 저지해야 하니가 까다로운 법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엔 “너 언젠가 하루 빠졌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와.” 이렇게 되는 고로 이 사람이 미리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와서 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고 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면 오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 여러분의 얼굴이 까맣게 되는 고로 예배 보러 오면 얼굴이 까맣다가 지금은 잿빛으로 변하게 되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 가서는 얼굴이 하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에만 보이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예배를 시작할 때는 꼬랑내가 나는 고로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 꼬랑내야.” 하면서 코를 감싸 쥐겠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은 인내력으로서 다져진 사람인 고로 그 정도 꼬랑내 나

는 거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꼬랑내가 지금쯤은 똥냄새로 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나질 않고 끝날 때쯤 되면 백합꽃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모님이 이 사람더러 불쌍하고 애처롭다고 하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너 참 너무나 불쌍하고 애처롭다.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당기는 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 이 지구 땅 위에는 한 사람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모님이 너무나 무 불쌍하고 애처롭다고 막 우시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세상 만민들의 죄를 짊어지고 더러운 꼬랑내 나는 것을 참으면서 그 죄를 해결하는 사람인 고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세주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기에 광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사실은 구세주가 가장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도맡아서 닦아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변소 청소하는 사람을 가장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은 인류의 똥과 같은 모든 죄를 청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모님이 “온 세상의 똥구덩이를 맡은 자야.” 그랬던 것입니다. 똥구덩이를 치워야 할 그런 책임을 맡은 자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정을 아시는 영모님인 고로 이 사람의 두 손을 붙잡고 한 시간 반씩 울어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불쌍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다시 또 더러워진 것을 구세주가 닦아줘야 되는 고로 구세주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맡긴 상태로 시종일관 변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21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욱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8장 여호수아》

2절: 여호수아와 히위 사람

(3) 에발산에서 돌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다

(지난호에 이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에발산 앞에 선 여섯 지파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의 취지는 열두 가지의 죄를 나열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저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두 가지의 죄에는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잊지 말라라는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에발산 앞에 선 여섯 지파 가운데 단지 민족만족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민족으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등 이들 여섯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하고 형식적으로 축복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받을 열두 가지 죄를 짓지 아니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반대이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4)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주민들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두렵게 생각한, 요단강 서편의 작은 나라들인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그리고 여부스의 모든 왕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싸우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고 재치가 빠른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계약을 맺으려고 생각하고는 대사를 보냈습니다. 대사는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몸차림을 꾸몄습니다. 헤어질 옷을 입고 곱팍이 쓴 뺨을 부대에 넣었으며 헤어지고 헤어져서 군데군데 기운, 날아빠진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길갈 진영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는 대사를 본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오셨소?”하고 물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와 십계명 비교》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신27:15-26)	십계명 (출애굽기20:1-17)
1.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기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 3. 하나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잊지 말라
2.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5.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3.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6. 살인하지 말라
4.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7. 간음죄를 짓지 말라
5.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8. 도둑질을 하지 말라
6.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7.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0.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8.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9.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0.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1.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2.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